



◇작은학교 운동회 날.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웃한 신내중학교 운동장을 빌려 축구경기를 가졌다. 작은학교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그리고 동생들까지 한몸으로 어우러졌다.



◇'이리크 어린이' 돕기 바자회. 아이들이 내 놓은 물건은 금방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고, 성공통에는 적지만 소중한 돈이 소복이 쌓였다.

##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란다”

### 실상사 작은학교를 가다



“교사는 수행자여야 하는데...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아요”

철학담당 강은화 선생님

한달 50만원의 보수로 교사, 학부모, 때로는 파출부 노릇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이나 '보람' 따위를 묻는 것은 언어 폭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 엉뚱한 질문을 했다.

-행복하십니까?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문현답이라 하겠지.

-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수행자가 교사여야 합니다. 마땅히 교사는 수행자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일이기니까요.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작은학교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분명 인격과 인격의 만남일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과서와 가장 넓은 교실을 가진 아이들, 실상사 '작은학교(중학교 과정)'의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리산 그 넓은 자락을 뒹돈산 삼고, 실상사 뜰을 마당 삼고 있으니 어찌 달리 이를 말이 있겠는가.

지난 20일, 작은학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길래 가까이 구경꾼이 되기로 했다. 여명을 해쳐 전라도 고을 남원을 향하는데, 3일째 계속되는 봄비가 그치지 않는데, 내심 불안했다. '허망치는 건 아닐까.', '아니아, 자연의 아이들이 이 정도 비에 움츠러들진 않을 거야.'

아무래도 좋았다. 사실 운동회 구경이야 구실이 있을 뿐, 취재의 근본 목적은 작은학교의 그 작은 몸짓이 과연 '대안'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으므로. 비록 눈에 비치는 건 '몸짓'이었지만, 그 몸짓 사이사이로 그것을 낳은 그네들의 내면을 읽어 보기로 했다.

예상은 반쯤 맞았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놀이는 취소됐지만, 이리크 어린이를 돕기 위한 바자회와 축구경기는 진행한다고 했다.

키움학교 생활관을 빌린 바자회장, 아이들이 내 놓은 물건은 다양했다. 거저 쥐도 가져갈 것 같지 않은 낡은 장난감에서부터 읽고 난 책, 양말과 티셔츠 등.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는 성공함에 알아서 돈을 내는 방식이었다.

바자회는 채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아이들 특유의 민첩함과 소란스러운 속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아무도 개의치 않을 분위기 속에서, 그 모습들이 참 보기에 좋았다.

이런 틈틈이 가져가는 직분은 강요하는 남 괴롭히기를 시작했다. 대표 교사인 이경재 선생님께서 굉장 놀랐다.

“과연 대안일 수 있겠습니까?”

무뎠던 실험은 아닌지, 현실 부적응자를 만들지는 않겠는지, 혹은 여유있는 자들의 또 다른 호사는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담고서.

“당연히 대안이어야 합니다.”

대답은 단호했다. 묻는 사람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은 듯이. 잠시 침묵,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이 이어진다.

“현재의 제도 교육은 임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인격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교육은 수단이 아닌 가치의 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인

생의 주인공으로서, 전인격적 존재로서 당당히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찾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 기실 채우기의 강함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자각하고 더불어 사는 강함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지역 주민의 집을 빌린 생활관에서 스스로 밥을 지어먹고 날마다 2km씩 학교를 오갑니다. 공동 텃밭 가꾸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고요.”

아이들의 행동은 스스로였다. 전체 모임 틈틈이 웃고 떠들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별한 통제는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물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를 거스르는 이런 원시적(?)인 교육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서로 나누고 이해해 주는 관계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다.” (3학년 김은희)

“딱 짜린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간다. 일반 교과목 공부 부족

한 건 사실이지만 노력으로 극복하면 아무 문제없다. 우리는 체험 학습 시간에 배운 나무 다루기 솜씨로 우리 학교의 나무 화장실을 지었다.” (2학년 최근혁)

학부모들의 생각은 또 어떨까.

“작은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공교육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곳의 교육은 일반적인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간다.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학부원 이진광, 45)

모든 정의가 그렇듯 교육 또한 그것을 정의하는 사람 수만큼일 수 있다. 그 중 하나. “교육은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작은학교의 실험은 성공인 듯 보인다.

간간히 꽃잎과 함께 내리는 부슬비 속에서 축구공과 뽕구는 작은학교 아이들, 엄동을 이겨낸 푸른 보리밭 같다. 1학년 11명, 2학년 14명, 3학년 12명에 선생님 10명. 다 합쳐야 일반학교의 한 학급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 그들 모두는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란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깨달아 가고 있었다.

남원=윤재학·사진=고영배 기자

### 실상사 작은학교는 '실험형' 불교계 유일...2001년 개교

#### 대안학교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여부와 교육 형태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형', '실험형', '비상설' 형태인데, 학교형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력이 인정된다. 현재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5개교다.

실험형은 중학 5여곳, 고등학교 3여곳으로 학교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나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형태다. 작은학교도 이 범주에 든다.

현재 기독교계의 대안학교는 15곳 정도이고 불교계에서는 2001년에 개교한 실상사 작은학교가 유일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미래의 부처를 키우는 대안교육이야말로 인재발사다. 조계종 교구본사마다 1개의 대안학교를 세워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날 것이다. 대안 교육을 통해 불교의 희망을 찾자”고 말한다.



◇2학년 학생들이 지난 겨울에 지은 자연 환원형 화장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